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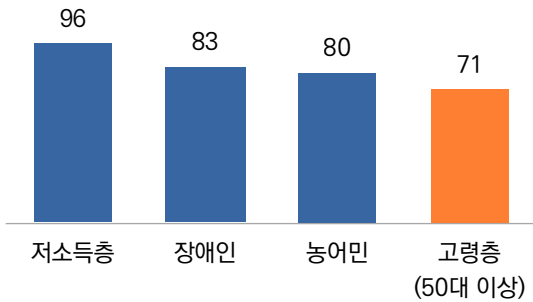


[고령층의 디지털 소외 실태]

노인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 정보 취약계층 중 가장 낮아

- 요즘은 핸드폰 앱을 통해 택시를 호출하고, 각종 은행 업무를 보며, 핸드폰 등을 통해 어디서든 인터넷에 접속해 정보를 찾아내는 일도 가능하다. 이런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여 정보에 접근하고 활용하는 과정이 누군가에게는 서툴고 어렵다. 최근 '2023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결과가 발표됐는데 이를 통해 고령층(50대 이상)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살펴본다.
- 일반 국민의 디지털정보화 수준을 100으로 봤을 때 4대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 고령층, 저소득층, 농어민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을 종합적으로 산출한 결과, 고령층은 71%로 다른 취약계층에 비해 가장 낮았다.

[그림] 정보취약계층의 디지털정보화 수준 (일반 국민 100으로 봤을 때 기준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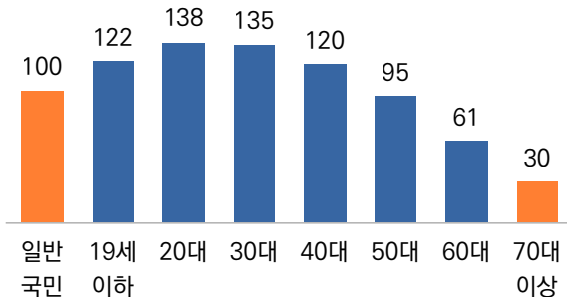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3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2024.01.

*디지털 정보화 접근 수준 : '유무선 정보기기 보유 여부'와 '인터넷 상시 접속기능 여부' 2개 항목간 가중치는 5:5이며, 항목별 점수는 100점 기준으로 산출
 디지털 정보화 역량 수준 : 'PC 이용 능력'과 '모바일기기 이용 능력' 2개 항목간 가중치는 5:5이며 항목별 점수는 100점 기준으로 산출
 디지털 정보화 활용 수준 : '유선 및 모바일 인터넷 이용 여부', '인터넷 서비스 이용 다양성', '인터넷 심화 활용 정도' 3개 항목간 가중치는 4:4:2이며 항목별 점수는 100점 기준으로 산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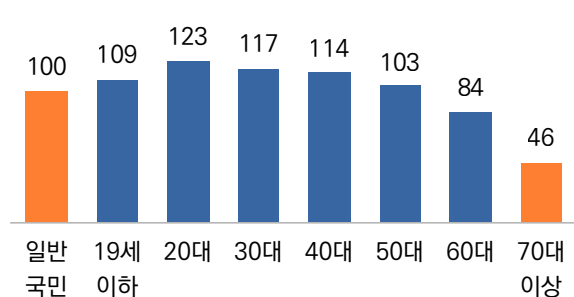
70대 노인의 디지털 정보 이용 능력, 일반 국민의 30% 수준에 불과!

- 위의 3가지 부문 중 '디지털정보화 역량'과 '디지털정보화 활용'에서 연령별 수준을 비교해 보았다. 먼저 컴퓨터/모바일 이용 능력 기준인 '디지털정보화 역량'은 20~30대가 각각 138%, 135%로 가장 높은 반면, 70대 이상은 30% 수준에 불과했다.
- 컴퓨터/모바일의 인터넷 활용 기준인 '디지털정보화 활용'은 20~50대까지는 100%를 넘는 수치를 보였으나, 60대 84%, 70대 이상은 일반 국민의 절반 수준(46%)으로 젊은 세대와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

[그림] 디지털정보화 역량 수준 (%)



[그림]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 (%)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3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2024.01.

Note) 역량: 컴퓨터/모바일 기본 이용 능력, 활용: 컴퓨터/모바일 인터넷 활용 정도